

“

생명의 숲으로 푸른 하늘을

”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 참여교단 · 단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 한국기독교교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기독교한국루터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 문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02-765-1136 www.knc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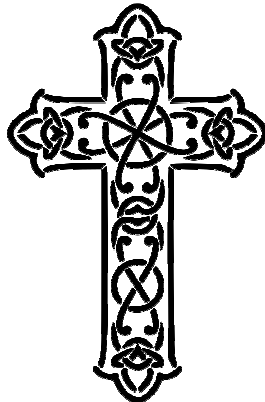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02-711-8905 www.greenchrist.org

2019년 환경주일 예배 자료집

“생명의 숲으로 푸른 하늘을”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목차

발간사	3
환경주일 공동 기도문	4
생명살림의 증언 1.	5
생명살림의 증언 2.	6
환경주일 설교문	7
환경주일 예식서	12
피조물의 신음소리	15
추천도서 및 자료	20



발 간 사

오동균 위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명의 숲으로 푸른 하늘을”이라는 주제로 제36회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창조질서 보전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가기 위해 환경주일을 성수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전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이 두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챙기는 일이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어 가거나 집과 가족을 잃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족할 줄 모르고 맹목적으로 성장과 개발만을 추구해 온 결과입니다.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풀과 나무, 흐르는 물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대해 온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앞장서서 멸망을 향해 가는 걸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생태적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참 좋다”하신 창조세계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지켜나가는 일,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며 모든 피조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삶을 선택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특히 이 땅에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힘쓰는 녹색교회가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창조세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숲 속에서 모든 생명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듬는 일에 앞장서 헌신하는 녹색교회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푸른 숲이 되어 창조세계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구하는 일에 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환경주일을 통해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소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태적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녹색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숲을 아름답게 일구어 갑시다.

2019년 환경주일 공동기도문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공기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생동하게 하셨습니다.

나무와 풀과 새와 동물들이 어우러져 생명의 숲을 이루어 서로를 보듬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당신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 세상이 어둠에 휩싸였던 것처럼,

미세먼지가 세상을 뒤덮어 하늘이 빛을 잃었습니다.

조금 더 편하기 위해 마구 태워버린 화석연료로 인해 공기는 더러워졌고 우리의 교만과 탐욕으로

숲을 짓밟은 결과 수많은 생명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더불어 숲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망각한 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만 했던 우리의 무지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교만을 속히 꺾어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 주십시오.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 착각하는 우리의 무지를 없애주십시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숲을 지키고 가꾸어 갈 거룩한 청지기로 부르신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감사하며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불편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있는 힘을 다해 생명살림과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위해 일하는

참 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생명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살림의 증언 1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위한 고양시청 목요기도회

유형석 목사 (나들목일산교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경기도 고양시는 북한산국립공원의 주봉인 백운봉의 소재지입니다. 항공 사진을 살펴보면 북한산의 줄기가 한강으로 뻗어나가며 행주산성이 있는 덕양산, 산황산, 정발산을 이루고, 고봉산, 황룡산을 지난 줄기는 파주 출판단지가 있는 심학산으로 흘러갑니다. 일산동구 산황산은 북한산 줄기에서 흘러나온 작은 동산으로 산자락에 기대어 대를 이어 살고 있는 농가들이 현재도 90가구에 이르며 600살이 넘는 느티나무가 마을 한 복판에 있을 정도로 고양시의 사람과 역사와 함께 해온 산입니다.

이 산황산의 북서쪽 자락에 지난 2010년에 9홀과 150석의 연습장을 가진 골프장이 들어서서 서울에서 가까운 장점을 내세워 성업 중인데, 2011년부터는 산황산의 나머지 전체 면적에 9홀의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을 매수하고 주민을 분열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어 왔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이 유발하는 농약, 조명, 골프공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이 증설되면 고양 파주 김포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K워터 고양정수장과 골프장의 거리가 불과 294m 밖에 되지 않는 등 심각한 피해가 쉽게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과 고양시민들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2015년부터 5년째 골프장 증설을 저지하고 산황산의 자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긴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고양시 지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산황동을 지키고 골프장 증설을 막아내기 위한 시민들의 활동에 성도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범대위에 앞장서는 시민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12월, 시민들의 평화로운 천막농성을 고양시청 당국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인권침해 행위들을 묵과할 수 없어 지난 해 12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째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고양시의회 앞마당에 있는 범대위 천막농성장 곁에서 목요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요기도회를 통해 산황동 주민들과 고양시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수고하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6개월 전 한 교회의 수요일예배로 시작한 목요기도회는 지역에 있는 여덟 개의 교회가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림의 증언 2

서산 웅소성 참된교회와 시멘트 제품 공장

김경호 목사 (충남 서산시 참된교회)

충남 서산시 해미면 웅소성리는 오래된 토성의 이름, 웅소성을 따서 웅소성리 입니다. 하지만 명칭과는 다르게 1997년부터 전투비행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20여년이 지나도록 군용기 소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웅소성리의 아픔은 2013년부터 시멘트 제품 공장이 마을 안에 세워지며 시작되었습니다. 분진이 많이 나는 시멘트 제품 공장이 웅소성리 마을 주거지 안에 입지하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시멘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비산먼지는 마을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염된 지역의 공기는 웅소성리 주민들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서산시는 웅소성의 역사와 문화 유존 지역을 무시하고, 웅소성이 있는 태성산 정상 지붕재 일원 6,000평을 훼손하여 아름다운 푸른 나무와 풀, 산 대신에 시멘트 제품 공장을 허가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주)그린기업은 친환경 황토 블록을 생산하기 때문에 건설소음이나 분진 등의 오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의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장건설에 우호적인 일부 주민의 결의를 얻어 공장건설은 진행되었습니다. 웅소성리 주민들은 친환경 황토 블록 생산에는 동의했지만, 결코 시멘트 공장건설에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웅소성리 주민 77명은 사업설명회의 약속과 이행각서를 어긴 (주)그린기업 공장가동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2016년 겨울, 금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한 후 지적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시멘트 공장과 마을 사이에 녹지조성이 없고 공장에서 생산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야적할 때 비닐덮개도 없어 분진오염의 위험이 높아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비산먼지가 인근 주민들의 폐질환이나 뇌졸중, 당뇨 등의 질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 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주)그린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기업 측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하며 계속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과 시멘트공장, 서산시 간의 갈등과 미움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참된교회는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시멘트 공장의 피해로 고통을 겪는 웅소성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웅소성리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생존권과 피해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2019년 환경주일 설교문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하자”

오동균 신부 (대한성공회 청주산남교회, NCCK 생명문화위원장)

1. 우리의 현실이 우울하다.

요즘 매일 매일 날씨 예보시간에 공기의 질을 점검하는 것이 생활화되었습니다. 미세먼지와 싸움이 일상이 되어 버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우울한 현실은 우리가 달려왔던 성장과 발전, 기술의 편리함에 대한 추구의 결과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이 편리해 지고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실상 우리는 곧 꺼져버릴 거품 속에서 성장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에 뒤덮인 푸른 하늘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도시 속에서 좋은 자동차와 고층빌딩, 깨끗하고 좋은 집과 빠른 교통수단, 스마트폰의 기술력이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유한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공기 전체가 더럽혀졌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조차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하는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대에 비해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고 있지만 결코 좋은 삶을 누린다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질병은 더욱 증가했으며 노후의 삶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 이웃들과 사람다운 관계를 맺기도 어려운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2.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루가복음 12장에는 예수께서 “어떤 탐욕에도 빠져 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13절)라고 경고하면서 들려주신 비유가 나옵니다.(12:13-21)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바로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고갈시켜 가며 살아가는 현대인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소출을 거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웁지! 더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엔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 두어야지.”(공동번역) 산업사회를 지나온 우리들은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곧 선이라는 환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경제학적으로 번역하면 ‘성장하는 것이 선’이라는 뜻이 되지요. 이

렇게 더 많이 생산하거나 더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원을 소비하고 낭비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본가들을 위한 성장 아니겠습니까? 기업가들을 위한 성장입니다. 경제지표가 성장으로 대표되는 것은 바로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더 많은 휴대폰이 팔려야 합니다. 경제성장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될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기존의 경제논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로 돌아와 말하자면 부자들의 생각대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참 어리석습니다.

비유의 표현대로 ‘오늘밤’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이 떠나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날의 어리석은 부자들은 공기 전체가 더럽혀져도 이에는 무관심한 채 더 큰 것에만 집착합니다. 자신들이 먹을 물이 땅 속에서 말라가는데도 하루에도 수 천 톤씩 병에 담아 물을 팔아 먹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에 무엇이 남아있을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현재의 성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전체가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장해도 그 많은 사람들은 그저 거대한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며 지구를 망치고 있습니다.

3. 지구 생태계의 지속적 파멸로 치닫는 문화적 예측

이렇게 무한정 확장해 가는 인간의 집단적 욕심은 진정한 인간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정치경제학적 체제는 이러한 무한정한 욕심을 내버려 두거나 나아가 조장하기까지 하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효율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무한정한 욕심을 미화하는 세계관은 이미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대의 세계관은 누가 특별하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사람들을 자극하며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기술이 만들어낸 미디어의 효과로 인해 더욱 광범위하게 번져가며 사람들의 내면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이러한 대중선전매체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이전의 문화 환경에서부터 이러한 문화에 예측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인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종교교육 어디에서도 이것을 위한 교육 체계와 양성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는 마치 자기 파멸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가장 우수하고 인간다우

며 성공한 존재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예측의 결과 삶과 환경과 생태계를 망치고 파멸시키는 자본의 집요한 확장 욕구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힘은 점점 무력화 되어 갑니다. 오늘날 사회를 더 좋게 변화시키기 위한 선한 싸움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규칙과도 같습니다.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의 문제,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규제요구는 번번이 대자본의 법적투쟁(?)에 굴복하고 맙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불법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규제요구를 받아들여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회사는 재판을 걸어 승소하고 맙니다.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오랫동안 투쟁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집을 부리면 난개발로 허물어지는 산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미세먼지 예보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그저 마스크를 쓰라는 말 밖에 하지 못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의 편이기 보다는 자본과 그 앞잡이인 정치인들에게 포위당한 채 무한개발과 무한성장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인간의 진정한 능력과 그에 대한 믿음

문화적 예측은 지적 결손을 뜻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고발하거나 밝혀내지 못하는 지적 결손에 부딪친 것입니다. 생태문화의 위기는 인간들의 지적 능력을 제한하고 더 좋은 선택을 위한 더 좋은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집단적인 예측상태를 유포한 결과입니다. 우리

는 이러한 문화적 예측의 현실을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더 좋은 선택을 위한 더 좋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루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리석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하는 걱정에 있습니다. 현재 인류가 치닫고 있는 생태위기의 원인은 바로 반생태적 문화에 예측되어 내리는 어리석은 선택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반생태적 문화에의 예측을 벗어나고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가 하는 문제는 명백합니다. 바로 창조된 지구의 모습을 그 질서대로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앞세우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연과 지구에 대한 공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욕구를 되돌아보고 그것이 우리 주변의 인간과 미래의 인간에게 이로울 것인지 해로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 하나님 나라와 생태적 정의

오늘날 현대 문명은 생태적 위기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성적 회귀보다 자신의 욕구를 확장해 감으로써 위기를 가속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태적 조건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파괴적 세계관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이 사회경제적 조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 모순을 은폐시킬 뿐 아니라 가속화시키기까지 하는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의 자기파괴적 질서를 넘어서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구 상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창조되었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창조적 존귀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창조질서를 거스르고 그것을 파괴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은 이러한 인간의 죄를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반 생태적 질서에 저항하고 거부함으로써 이룩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질서의 회복과 보전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

기 위해 생태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인간을 어리석은 욕구의 화신으로 만드는 문화적 예측에 저항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잘못된 과학과 기술의 이데올로기와 자본가 중심의 사유재산제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서구 교회는 한 때 자본의 요구에 눈을 맞추고 그에 편승하여 기독교를 왜곡해왔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산업화 이후 천박한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욕구에 발을 맞추어 성장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기독교의 성장이 한국의 반공 권위주의에 기반한 개발독재와 함께 한 것을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단과 생태적 파괴를 그대로 물려주는 기성세대 종교로 전락한 한국의 기독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해 주신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기독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6. 한반도의 생태적 현실과 한국 기독교가 해야 할 일

2019년 환경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날 한반도의 생태적 현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생태적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도시들은 대기와 농토와 수질을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금융자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산과 들이 투기의 대상

으로 바뀌어 난개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술화의 과정에서 모든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석유와 핵을 에너지원으로 쏘으로써 대기오염을 가중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자본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만 힘을 쓸 뿐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그리고 기술자본의 지배 하에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점점 더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시민들이 반생명적 문화에 포섭되어 자본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를 동일시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반생명적이고 반생태적인 기술과 자본의 포로가 된 시민의식을 깨우치는 것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을 통해 이룩한 것은 많지만 생태적 자기 결정권을 잃어버린 반쪽짜리 민주화 사회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기독교는 창조질서의 영성에

바탕을 둔 생태적 영성을 회복해야 하며, 교회의 환경운동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생태적인 질서를 추구하는 시민운동과 함께 하는 생태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한국교회는 각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생태운동과 투쟁에 여러 모습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난개발에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선 성직자들과 교우들이 있고, 생태환경의 보전에 앞장서왔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청주시에서도 소각장 건설 반대와 그 피해에 대한 주민운동,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공원의 난개발 반대를 위한 시민투쟁에 기독교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기독교환경운동단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운동으로 대동단결하여 한국의 생태운동에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 하여라.”*

시편 34:14

2019년 환경주일 예식서

※ 여는 찬송 /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함께

1.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2. 오소서 오소서 정의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3.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 예배로의 부름 / 다함께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숲이 되어 창조질서 보전에 앞장설 것을 명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함께 :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생명 살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숲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귀한 사역에 앞장서게 하소서.
아멘

※ 찬 송 /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 다함께

1.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세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2.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 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곧은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굳게 하소서
3.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 길가로 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4.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생명살림의 증언 1 / 말은이

생명살림의 증언 2 / 말은이

기 도 / 맡은이

찬 송 / 631장 우리 기도를 / 다함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말씀봉독 / 시편 34:14 / 맡은이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 하여라.”

설 교 /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하자” / 맡은이

공동기도 / 다함께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공기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생동하게 하셨습니다.

나무와 풀과 새와 동물들이 어우러져 생명의 숲을 이루어 서로를 보듬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당신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 세상이 어둠에 휩싸였던 것처럼,

미세먼지가 세상을 뒤덮어 하늘이 빛을 잃었습니다.

조금 더 편하기 위해 마구 태워버린 화석연료로 인해 공기는 더러워졌고 우리의 교만과 탐욕으로
숲을 짓밟은 결과 수많은 생명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더불어 숲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망각한 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만 했던 우리의 무지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교만을 속히 꺾어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 주십시오.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 착각하는 우리의 무지를 없애주십시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숨을 지키고 가꾸어 갈 거룩한 청지기로 부르신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감사하며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불편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있는 힘을 다해 생명살림과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위해 일하는

참 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생명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 말은이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살림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있는 힘을 다해 생명살림과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힘쓰십시오.

다함께 :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생명살림과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멘

※ 파송의 찬송 /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 다같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뜻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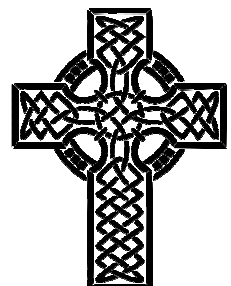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주의 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주의 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 축복기도 / 말은이



피조물의 신음소리 : 2019년 환경주일 주제 해설

1. 미래 세대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올해도 기후변화의 뚜렷한 징후가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의 대응은 더디고 미진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참다못한 스웨덴의 16세 청소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우리의 집은 불에 타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훔치지 말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125개국의 2,000여개 도시에서 60만 명의 청소년들이 동맹유학을 하며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청소년들도 지난 3월 15일, “기후악당 국가탈출을 위하여”를 외치며 이 운

동에 동참했습니다.

2019년 환경주일 주제는 “생명의 숲으로 푸른 하늘을” 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거나 무책임하게 남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푸른 하늘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스스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창조세계의 회복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태적 회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생태적 회심은 간절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철저한 삶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푸른 하늘이 왜 미세먼지로 가득하게 되었는지, 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고찰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2. 미세먼지로 인해 이 땅의 생명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2년 발표 자료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 연간 700만 명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의 문제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초미세먼지(Fine particle 2.5)는 전 세계의 420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오염물질입니다. 우리나라

에서도 미세먼지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기오염과 초미세먼지로 한 해 2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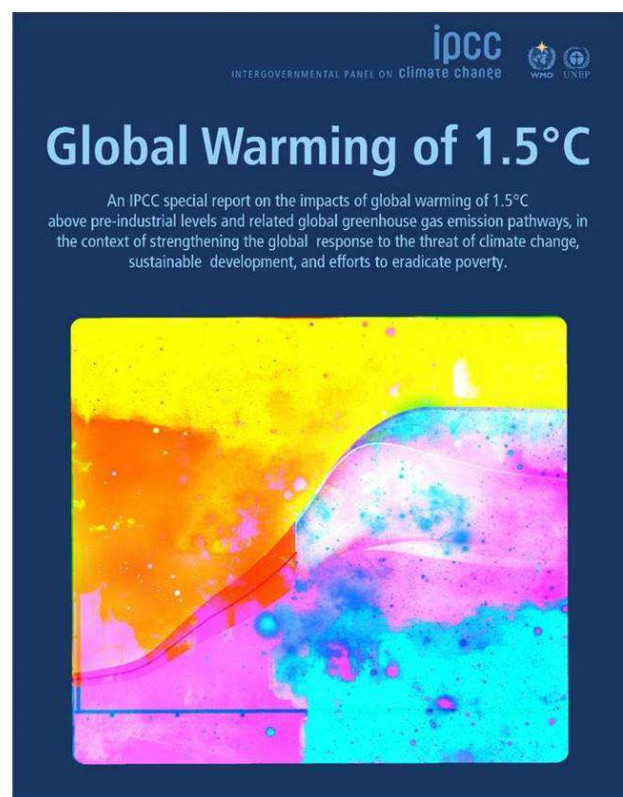


미세먼지의 공포와 경각심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그 원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정책포럼의 2019년 설문조사에서 88.2%의 응답자들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이라고 답했고,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이나 교통수단이 미세먼지의 원인일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4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막연하게 오염의 원인을 중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과 해결방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대부분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화석연료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와 함께 미세먼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미세먼지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점차 녹아서 한반도가 포함된 유라시아 대륙과 바다의 온도 차이가 줄면서 봄철 풍속이 감소하게 되었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더욱 짙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의 대책과 미세먼지의 대책은 별도의 것이 아니라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IPCC 1.5°C 기후변화 특별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1990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이하 IPCC)의 기후변화 1차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2014년 5차 보고서가 발표되기까지 긴 기간이 지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제 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발표 되었지만 국내 언론은 이를 중요하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환경주일을 맞는 한국 교회가 이번 특별보고서의 의미와 시사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이미 지구의 평균온도가 약 1℃가 상승했는데, 2050년까지 0.5℃ 이내로 추가 온도상승을 막지 못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과학적 통계를 통해 예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각국들의 구체적인 강력한 탄소절감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발표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 배출될 전망치 보다 37%의 온실가스를 더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고 에너지 전환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수준의 탄소절감 정책으로는 2050년에 탄소제로국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더욱 과감하고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에너지 전환을 확대해야 하며, 또한 탄소 포집을 위한 젊은 숲을 조성하고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1.5℃ 특별보고서는 각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시민들의 세계관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사회적 정의와 평등, 인간의 존엄과 관계된 사회문화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후변화는 종교인들에게 시민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4. 이제 한국교회의 생태적 회심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창조하신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회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 없이는 해결이 힘듭니다. 기후변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시민들의 세계관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일상생활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태적 회심을 통해 창조세계를 파괴하던 삶을 돌이켜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생태적인 회심을 위해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현실과 미세먼지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교육을 통해 지구의

생태적 위기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대안적인 삶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생태적 영성을 함께 나누고 창조세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물과 여유 부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 자연의 숲과 녹지를 파괴하는 상업적인 태양광 발전소가 아니라 도시의 건물과 땅을 이용한 건강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는 단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총의 선물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감으로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사용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에너지를 아끼며 사용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간단한 실천이지만,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고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5.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품, 숲을 가꾸어야 합니다.

푸른 숲과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은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 물질은 숲의 나무들을 통해 맑은 공기로 정화됩니다. 숲을 가꾸고 조성하는 것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생명을 보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창조의 동산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숲은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숲을 파괴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

총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숲들은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한 개발로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라는 잠시의 이벤트를 위해 파괴되었던 수백 년 된 가리왕산 숲은 아직도 복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었던 경기도 고양시의 산황산은 골프장을 짓는다는 이유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주도의 신비를 간직한 비자림과 꽃자왈 숲은 난개발과 도로 공사, 그리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신공항 건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높은 산들은 케이블카로, 깊은 계곡은 양수발전소로, 비무장지대는 관광 개발로, 도심 숲들은 공원일몰제로 모두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2019년 환경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창조세계는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주어진 창조세계가 인간의 탐욕 앞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는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믿고 따를 것인지, 여전히 지금과 같이 탐욕의 이끌려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품, 숲이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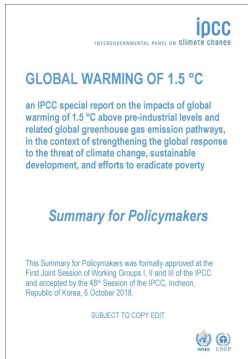
참고자료 1. <https://twitter.com/gretathunberg>

참고자료 2. http://www.greenfund.org/m/board/board.php?bo_table=notice&idx=363

참고자료 3. <http://www.climatechangecenter.kr>



추천 도서 및 자료



지구온난화 1.5°C 특별 보고서 국문 및 영문 요약본

2018년 10월 8일, 인천송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총회에서 채택되어 발표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담은 자료집입니다

(자료 공유 및 다운로드) <http://www.climatechangecenter.kr>

(관련 동영상)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894318/H#none>

지구온난화 1.5°C 특별 보고서 관련 세미나 자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단법인 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각 교단과 함께 2019년 3월에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의 의미와 신앙적 응답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세미나에 함께한 기후과학자와 신학자들의 강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공유 및 다운로드) <http://www.greenchrist.org>



추천 도서 1.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일상의 눈높이에서 기후변화 시대의 문제와 영향을 분석한 책입니다. 저자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리와 과정을 인문학적 통찰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앞으로 기후변화는 어떻게 될까? 기후변화가 일상화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친절히 답을 합니다.

지은이 : 조천호 / 펴낸곳 : 동아시아 (2019)

추천 도서 2. 한국교회의 에너지 전환과 햇빛발전소 이야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미세먼지의 위기 앞에 어떻게 한국교회가 응답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사례들을 담은 책입니다. 2018년 진행된 한국교회환경연구소의 생명경제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논문들을 신학적 기초로, 교회 햇빛발전소의 설치와 운영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지은이 : 신익상, 송진순, 장동현 / 펴낸곳 : 도서출판 동연 (2018)

